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
- '통일' 주제를 중심으로 -

오 의 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요 약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특정한 종교미술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 실천과 참여의 조형예술로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변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서 현실의식을 체현한 실천적 작품 사례들을 찾아서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연구를 진행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실천적 작품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성향,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론의 성격,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의식과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발간된 문화신학 이론서와 국내의 기독미술저서와 작가론, 비평들을 수집하고 연구의 자료로 살펴보면 한국 현대기독교미술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작가들의 신학적 입장이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과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의 영향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로서 사회의 변혁보다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고 따라서 작업의 주된 경향이 말씀의 시각적 증언과 선포, 경건과 영성적 삶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명 등은 기독교미술의 주된 범주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기독교 미술은 일상과 현실, 역사와 환경, 정치와 국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혁적 노력을 보여주는 경향의 작품들을 기독교 미술의 영역 밖의 미술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인식과 체현을 다룬 작품들이 기독교미술의 범주 안으로 편입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존 스토트는 그의 명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전쟁과 평화, 환경, 인권, 실업, 빈곤, 경제적 불균형, 인종과 다문화사회,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 페미니즘, 동성애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한 차정식교수는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에서 정치, 세대갈등, 양극화, 연고주의, 가정의 해체, 자살, 생태, 다문화 사회 등 구체적인 문제로 23가지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실천의 주제로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다룬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오염과 생태,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노인문제, 위안부, 동물실험과 세월호 등 다양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차기의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과 분단 상황의 극복에 대한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작가로 허진권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고, 그리고 최근 '부드러운 장벽'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조각가 이웅배의 설치작품과 연구자의 철조망 작업 사례를 포함하여 다루었다. 공통적인 것은 작가들의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적 배경, 또는 청년기 군복무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현실의식이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내재된 작가의 갈망과 염원이 특정한 시대적 상황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작품 속에 체현되고 대외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허진권 작가의 경우는 어린 시절 자란 섬마을의 환경과 전공학과의 책임자로서의 정체성이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각가 이웅배의 경우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가족의 역사적 배경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자의 경우 철책을 지키는 군생활의 경험과 기억이 현시대의 교회와 국가적 상황을 만나면서 작업의 동인을 제공받게 된다.

연구의 진행 속에서 발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연구자의 작품세계를 비롯하여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오직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보다도 현실의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의 인식과 조형적 체현의 작업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에 대해 반응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하나의 책임의식이며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결과일 것이다.

이미 진보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등을 통해서 이미 실천과 참여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신학적 함의가 현대 기독교미술의 양식 속에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미술을 종교적 주제와 교회 안의 미술로 한정하고 제한해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작품을 기독교미술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 인식과 실천에 궤적을 같이하면서도 조형 작품의 특성상 그 증언적 기록의 의미를 갖는다. 비록 소수의 작가들이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조형적 체현으로 현실의식을 담아낸 작품 분석과 해석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고. 그 지평을 확장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찾고 미술계를 향하여 문화변혁적 소명을 일깨우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미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행동하는 예술'로서 하나의 대안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기독교미술, 체현, 현실의식, 통일

Ⅰ. 서 론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 실천과 참여의 조형예술로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변혁적인 의미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조형 예술가들의 현실 의식과 조형작업을 통한 반응을 작품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다루고 정리함으로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둔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이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며 단체 활동으로 출현한지 반세기가 넘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201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기독교미술의 50년 전시와 학술심포지움을 열었으며, 발제된 논고들을 종합하여 '한국 기독교 미술 50년'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정리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식과 실천의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의식과 실천적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기독교 미술이 특정한 종교미술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상황에 대한 검토와 진단으로 출발하는 본 연구는 먼저 현실의식과 실천적 작품 사례가 찾기 어려운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성향,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론의 성격, 이를 배경으로 형성된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과 의식에 있다고 보면서 국내의 기독미술이론서와 작가론, 비평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기독교 미술이 현실의식과 실천 성향의 작업에 취약성을 보이는 이유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기독교미술의 핵심적인 성격을 체현(Embodiment)의 미학이란 관점에서 말씀(Logos)이 체현된 작품세계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향의 로고시즘(Logos-ism)으로 정의하면서 연구해 왔다. 로고시즘 미술의 세 가지 범주는 1. 말씀의 선포와 증거 2. 말씀의 변증, 3. 말씀의 실천과 참여로 정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 인식과 실천은 로고시즘 미술의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경향의 작품세계이다. 그것은 말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작품의 형식과 질료로 담아내기 보다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되 특별히 낮은 곳을 향하는 하향성의 시선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말씀이 지향하고 요청하는 한국 사회의 인간과 자연, 환경과 현실을 조망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작업들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의 주제로 통일과 평화를 다룬 작품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의 작품과 전시에 대한 문헌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대상들을 찾고 작가 연구는 문헌 자료의 연구에서 출발하지만 작품 전시의 관람과 작업실 답사. 작가의 노트와 대담 기록 등을 통해서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작가의 현실의식과 경험 세계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 어떤 연관을 가지며, 말씀이 체현된 조형세계로서 기독교 미술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 현실의식의 체현을 통해서 현대기독교미술의 내용이 어떻게 확장하고 풍성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단체로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와 한국미술인선교회, 지난 2018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아트미션" 이 세 개의 단체를 들 수 있다. 이 세 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을 정리하는 책자와 전시를 2015년에 가진 바 있다. 그 책자에서 현실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가와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시장 사람들>, 이연호의 <이촌동 풍경>,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작가로 김복동의 <노인-한국사>, 심정아의 통일 비전캠프 설치작품 < Burning Sacrifice-Hands>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이며,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미술선교적인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아트미션 단체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출발하여 기독미술론의 정립을 위한 포럼을 매년 가지면서 그 결과들을 책자로 발행하여 왔다[1] 그 외에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아트비전>을 들 수 있고, 대형교회들 안에서 활동하는 몇 개의 미술선교

1)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2011) 예술적 창조성과 영성 (Spiritual Creativity) 2012, Image & Vision 2015

그룹이 있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의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기독미술작가들의 단체가 있는데 연구자가 속한 대구기독미술선교협회의 경우도 현실의식을 나타내는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작품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대구지역과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2007년 발간된 이론분과 회원의 논문집 '한국 기독미술의 흐름 Pro Rege Ⅱ'를 발간하면서 한국 기독교미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에서 미술평론가 서성록은 현대 기독교미술의 작품 성향을 한국기독교 미술협회의 회원들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다섯 유형으로 니눈다. 1 성경의 테마, 2 신앙고백, 3 은혜의 증거, 4 자연, 하나님이 피조세계, 5 미의 질서 로 구분하면서 작가의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성록, 2007: pp. 18-26) 그의 구분과 정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 기독교미술'에 실린 '구속(救贖)의 예술 논고에서도 '성경의 테마'와 '신앙고백'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주제로 '일상의 은혜와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구분하여 작가군을 분류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인 제언에 이르러 기독교 문화와 예술의 구속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항상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없고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룬다. 힐러리 브랜드(Hilary Brand)와 아드리엔느 채플린(Adrienne Chaplin)이 <예술과 영혼>에서 언급한 "결코 천진난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조언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만일 기독교 예술가 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빌4:8)란 성경구절을 회화적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섬뜩한 재현이 될 것이다. 전쟁의 추악성을 고백한다든지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한다든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부패와 무질서를 묘사하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장면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단면만을 보는 협애한 시각일 뿐이다. 바울은 "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한다 "(롬 8: 22)고 말한다. 만일 기독교미술가들이 다른 한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서성록, 2017: p. 51)

서성록의 이해와 제언에서 연구자는 일찍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회화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 상황의 실존을 다룰 수 있다는 폴 틸리히의 말을 상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스 기니스가 말한 '선지자적 반시대성' 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도전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책자의 논고에서 최태연 교수는 기독교 회화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 같은 성경의 내용이나 상징을 다루는 성화 작품, 둘째, 한국의 신앙인이나 순교자를 다루는 작품, 셋째, 기독교 신앙의 관점(세계관)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구분하면서 한국의 기독교회화의 대다수가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세 번째 범주인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한국의 기독교 회화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최태연, 2007: p. 75.)

이미 진보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등을 통해서 이미 실천과 참여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신학적 함의가 현대 기독교미술의 양식 속에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보수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 지며, 기독교 미술인 작가들의 공동체인 단체와 그룹들이 주로 보수적인 대형교회의 작가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Ⅲ.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나타난 현실의식

1. 평화와 통일의 프로레고메나(Prolegomena)

기독미술 작가로서 기독미술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자적인 개인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경우 작품세계의 발견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전과 퍼포먼스를 통해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천착해온 작가로 허진권이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지속해 온 ILUK의 현장 전시 및 퍼포먼스는 작가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조형적으로 체현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헌신적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ILUK 은 'I Love Unification of Korea'의 첫 자를 가지고 만든 고유 명사로, 우리말로는 '이룩'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작가는 '통일염원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다. 2015년 8월, 대전 이응노미술관 광장에서 벌인 현장전시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016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2017년에는 파주 임진각에서, 2018년 천안 리각갤러리 초대전시로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를, 2019년 대전시립미술관 광장으로 지경을 넓히며 이어가고 있다. 물론 통일문제는 기독미술인 작가들보다도 민족미술 진영의 작가들에게서 더욱 부각되어 다루는 주제인데 허진권의 경우는 기독작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에서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으로 '예술 하는 순교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발현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임을 밝히고 있다. 허진권이 어떻게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고 작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작가의 글을 참고해 보면 그가 자란 시대와 지역에서 비롯한 역사의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1〕

〔그림2〕

작가는 그가 낳고 자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작품이 탄생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기 전, 시골보다 더 낙후된 조그만 섬에서 자라며 보고 배우고 느꼈고, 이것들이 내 예술의 모토가 됐다. 특히 가난, 노름, 젊은이들의 폭력, 게으른 어른들, 상이용사를 가장한 거지와 용천배기 등등을 보는 것은 무척 두려웠다. 맑고 고요한 하늘과 파란 바다, 그러다가도 폭풍우 몰아치고,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이렇게 폭력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배경이 작품에 있어서 현상 보다는 본질, 시각적인 장식성 보다는 역사의식을 가진 실험을 하는 작가로 성장하게 됐다 (허진권, 작가의 노우트)

〔그림3〕 ILUK의현장- 대한문, 광화문광장 〔그림4〕

작가가 주로 광복절과 삼일절을 맞으면서 전시를 가지는 것은 그의 역사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허진권 작가가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조형체현 작업을 지속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작가는 2004년에 목원대학교에 신설된 기독교미술과의 주임교수로서의 자리가 갖는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2006년부터 '점'을 주된 요소로 하는 작업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사랑'으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면서 '작품에 찍힌 하나하나의 점들이 파장을 일으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비롯된 작업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사랑, 평화, 자유, 구원, 기쁨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평화를 실현하고 싶었으며 결국 평화는 작가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허진권 작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의 종교적 신념과 역사의식에 비친 사회현상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술가로서 고민한 결과 '통일'을 가장 절실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통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다. 대전일보사와의 협력으로 신문에 필자의 작품을 알려서 기사가 되고 그 기사가 다시 작품이 되는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시도를 한다. 즉 언론이 작품이 되고 그 작품이 다시 언론으로 변모하는 순환 자체를 한 점의 작품으로 보는 개념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통일 염원 프로젝트 - ILUK 운동'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계

속 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더 많은 작가들과 무용가, 음악가, 후원자들로 구성된 토탈 아트로서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퍼포먼스를 구상한다.

미술평론가 김병수는 허진권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본능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분단이라는 현실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개인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인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확장으로서 우리의 상황은 통일을 바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생존의 보장과 지속을 위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허진권의 평화에 대한 갈구 역시 생존에 대한 보증의 요구로 해석한다.

〔그림5〕 ILUK의현장- 임진각

〔그림 6〕

반면에 2018년 리각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열린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네 신을 벗으라-"는 허진권 작가의 기독교 신앙과 정신이 가장 잘 체현된 전시로서 전시를 기획한 김나영 수석큐레이터는 '믿음으로 예술하는 순교자'라는 제하의 평문에서 리각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허진권의 설치전이 오늘날 예술과 예술가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본다. 그리고 작가의 소명의식 특히 전 지구적 생명의 존립을 위해 요구되는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보편적인 이슈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아젠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의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8〕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록으로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은 세속의 더러움을 벗는 행위이자 거룩한 소명을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모세의 옛 자아일 것이다. 허진권은 2018월 3월 10일자 작가의 노트에서 욕망과 위선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적용하기로 다시 한 번 결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작업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술하는 순교자라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것이다. 연구자는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그의 순교적 열정을 담아내는 체현의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허진권에게 있어서 퍼포먼스는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모토아래 시도된 1981년의 첫 개인전과 1982년의 결혼현장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적 삶이 작품으로 체현되기 위해서 쉽게 희생되어지곤 한다. 전국의 몇 도시와 제주도를 경유하는 순회여행은 그럴 수 있다고 하드라도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식을 작품화 기 위해서 작가가 감내해야할 어려움과 희생을 매우 컸을 것이다.

운동성을 가진 허진권의 ILUK 작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꿈꾸는 통일의 날이 언제일까를 묻기 이전에 그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통일의 결과보다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이기에 통일을 결과로 바라보기보다는 통일 자체를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분단의 철책이 전면적으로 걷히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하나의 체제로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태를 부분적인 과정적 통일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작가가 염원하고 꿈꾸는 통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연합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면 작가의 염원은 이미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부드러운 장벽

이웅배는 2018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수애뇨갤러리에서 〈부드러운 장벽〉 설치전을 가졌다. 그 작업과 전시의 연장선에서 2019년 4월부터 8월가지 민통선 안에 위치한 연강갤러리에서 설치작품전을 연다. 작가는 장방현의 긴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 철망처럼 사선들이 교차된 투명 비닐을 일정 간격의 철골 지지대에 걸어서 긴 장막을 설치한 것이다. 투명한 연질의 비닐 커튼이라 할 수 있기에 장벽을 밀치게 되면 자유롭게 장벽을 지나서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오랫동안 금속파이프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으로 일관해 오던 작가에게 이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웅배의 작업에서 한반도를 가로지른 휴전선 철책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져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내의 전방감시초소(GP) 철거 등이 떠오르며 장벽을 걷기 위한 노력과 걷힌 이후의 소통을 생각하게 된다. 그의 작업이 한반도 시대상황에 대한 은유라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작업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부적 여건과 함께 작가에게는 분단으로 인한 아픈 가족의 역사가 있고 그의 작품에서 내적인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작가의 아버지는 실향민이 되었다. 서울로 유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에 전쟁이 터졌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전쟁 전에 남한에 속해 있었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 편입됨으로써 고향을 잃게 된 황해남도 연안 태생의 아버지는 실향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끝이질 않았다고 한다. 작가는 분단과 실향, 이산의 유산을 물려받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은 곧 작가의 소원으로 이어졌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부드러운 장벽의 작품설치로 체현되어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림9〕

〔그림10〕 Communaté, 1998

그럼에도 여기서 이웅배의 장벽 작업을 그의 지난 작품들과 연관하여 설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미술평론가 최대만은 작가의 작품 〈고랑포리-도밀리〉가 단절되지 않은 채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의 조형성에 있어서 이웅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금속파이프 작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웅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유기적인 금속파이프 작업에서 표면의 촉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조각에 접촉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조각에 올라타거나 매달림으로써 작품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의도가 장벽 작업에서도 경계 넘나들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연구자는 이웅배의 배관작업 꼬미노떼(Communatė) 연작에 대해서 작품의 명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작가의 삶과 작업이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왔다.

불어 제목 '꼬뮈노떼' 우리말 로 공동체를 뜻을 가진 그의 기둥에는 크고 작은 단위들이 서로를 받치며 세워 가는 연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팽창과 수축의 반복이 다양한 굴곡과 함께 유기적 볼륨을 형성합니다. 기둥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만큼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웃한 기둥에 대해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기둥들 사이에 만들어진 소통의 공간에 머물게 합니다. (오의석, 2006: p.163)

작가가 지향해온 접촉과 소통, 연합의 공동체성을 부드러운 장벽 설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어지고 있다. 이웅배의 부드러운 장벽 설치 작품전은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걷히고 접촉하고 소통하며 연합하는 민족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소망이 체현된 작업인 것이다.

3. 철조망 오브제의 연작

‘현실과 발언’ 그룹을 중심으로 촉발한 민중미술은 1980년대 전성기를 맞는다. 연구자가 속해 있던 그룹 ‘마루조각회’는 작가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창작을 중시하는 청년작가들의 신생 그룹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분단’ 이란 주제의 테마 기획전을 가진 적이 있다. 청년조각가들의 그룹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미술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아야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최류탄 냄새 속에서 미술을 배워야 했던 70년대의 대학시절을 보낸 청년 조각가로서 연구자는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상하면서 동년배 작가들의 마음을 대변한 적이 있다.

〔그림12〕 손의 연작, 마루조각회 테마전, 1983

어떻게 점, 섬, 면, 양과 괴, 공간, 구조 이런 조형의 순수성만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지가 우리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청각과 시각의 장애자가 아니라며 아마 신선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 그래서 우린 학교를 마친 후 민중작가의 간판을 내걸든 내걸지 않았던 민중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 광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적극성으로부터 적어도 환경과 전통, 지역성의 이야기기를 붙들지 않고는 의식의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오의석, 2003: p.58)

‘분단’ 테마전에서 연구자는 최전방 철책연대에서 작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2년여 넘게 하염없이 바라본 휴전선 철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손의 연작이라는 부조 작품 연작 6점을 빚어 출품한다. 〔그림12〕 철조망과 두 손, 팔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들로서 더러는 양 손이 철조망에 의해서 조여오는 듯하고, 더러는 철조망을 힘 있게 걷어내는 듯도 한 부조 연작들이었다. 그리고 철조망을 한 가족의 얼굴과 병치 구성한 작품 ‘일가’ 라는 제명의 작품도 당시에 제작되었는데 한국미술협회전에 출품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다. 작품 ‘일가’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재회의 소망을 체현해 본 작업이라 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14〕 일가(一家), 한국미술협회전,

그리고 약 35 년이 지난 후 연구자의 철조망 테마는 재현이 아닌 실제 오브제의 차용과 변용 제시로 작업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2017년 작 '어린양'(대구 경북 성시화전 출품)은 흙으로 소성된 도조 어린양 오브제에 철조망을 감아서 칭칭 동여맨 작품이다.[그림15] 작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나타내는 동시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위기의 한반도와 온갖 악재에 시달리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연구자의 작업은 감긴 철조망 롤을 풀어서 하트 형태를 그리고 중첩하는 형식의 드로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 41회 경북조각회전에서는 바닥의 철조망 롤에서 풀어진 철조망이 벽면에 하트를 연속적으로 그리며 설치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그림16]

〔그림15〕어린양,대구경북성시화전, 2017

〔그림16〕 Drawing-평화 2017, 경북조각회전

한 NGO 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작은 모뉴멘트 (W-story,양평) 프로젝트는 세 개의 앵글 파이프가 하나로 만나는 상부의 접점에 철조망 하트가 중첩되어 걸려진다. 그리고 지면에 박혀있는 자연석들은 철조망이 십자로 교차하면서 감싸는 구조를 가진다.[그림18]

이처럼 오랜 공백기를 거쳐 35년 뒤에 다시 출현한 철조망 연작들을 정리하면서 연구자는 이제 철조망 작업을 그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것은 곧 분단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작가의 작품에 철조망이 등장할 이유와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림17〕 W-Story 작은 모뉴먼트, 2017

〔그림19〕철조망 하트 Drawing,2017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한다. 가능한 좀 더 영속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 원하는 것이 작가로서 일반적인 바램일 것인데 그럼에도 문제 상황의 해결과 함께 작품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가능한 작업리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시대를 사는 한 작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분단의 고통을 작업으로 체현하면서 함께 아파했음에 대한 증언으로서 철조망의 연작이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Ⅳ. 결 어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정리된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드러내는 실천과 참여적인 작품은 많지 않다. 크리스천 작가들이 기독교의 주제에 집중하는 만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보고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기독미술 이론가들도 기독교미술을 특정한 종교미술의 범주 안으로 가두기보다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조망하고 표현할 것을 희망하며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 실천과 참여의 조형예술로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변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대 기독미술 작가들의 실천적이고 참여적 작품 속에 현실의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과 작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독미술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조망하며 다루어야할 현실의 영역은 매우 크고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통일을 중심으로 세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다. 공통적인 것은 작가들의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적 배경, 또는 청년기 군복무 등의 앞선 경험으로부터 이미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현실의식이 작가들의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내재된 작가의 갈망과 염원이 특정한 시대적 상황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작품 속에 체현되고 대외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허진권 작가의 경우는 어린 시절 자란 섬마을의 환경과 전공학과의 책임자로서의 정체성이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조각가 이웅배의 경우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가족의 역사적 배경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자의 경우 철책을 지키는 군대생활의 경험이 현시대의 교회와 국가적 상황 을 만나면서 작업의 동인을 제공받게 된다.

이상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업은 작가들의 신앙양심과 현실의식이 함께 빚어낸 것으로 현대 기독미술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미술이 오직 기독교적 주제와 교회의 미술 안에서 제한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역사와 영역을 종교적 범위 안으로만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만다. 비록 소수의 작가들이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조형 예술가들의 현실 의식과 조형작업을 통한 반응을 작품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루고 정리함으로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고. 그 지평을 확장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찾고 미술계를 향하여 문화변혁적 소명을 일깨우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미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행동하는 예술'로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종 외 (1996). 한국미술인선교회 편.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김영한(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성광문화사.
김이순 (2015). "복음적 실천으로서의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조각의 몇 가지 양상"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서봉남 (1995).『한국기독교 미술3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미술사랑.
_____ (2007). "크리스천 미술 리포트"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_____ (2015). "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_____(2017). "구속(救贖)의 예술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 서양화 작가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기독교미술,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오의석(2003).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_____(2006).『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홍성사.

_____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호. 대구: CUP.
_____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14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_____ (2007). "한국 현대 로고시즘 미술의 지평" 제24회 기독학문학회논문집, 통합연구학회.

_____ (2010).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과 로고시즘(Logos-ism)의 이해", 기독교학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_____(2010).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5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이석우 (2015). "예술과 신앙의 행동인-화가 목사 이연호: 행적과 그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연호 (1993),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통합연구 18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이은주 (2007). “말씀의 체현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통합연구 47호. 서울: 통합연구학회.
임성빈(2004).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신대학교출판부.
장준석 (2015). “한국화와 기독교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차정식 (2012).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최태연(2007). “한국의 전통미술과 기독교미술”.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 (2006)『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서울:예서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2015).『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서울:예서원.
한정희(2015). “아시아의 현대 기독교미술- 인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Harries, Karsten(1968), *The Meaning of Modern Art :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오병남, 최연희 역(1990),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울: 서광사.
Homlmes, A. F.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역(1985), 서울: 엠마오.
John R. W. Stott(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Rookmaaker, H. R. (1978), *Art need no justification,* 김헌수 역(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 IVP.
Schaeffer F. A (1973), *Art & the Bible,* 김진선 역(2002), 『예술과 성경』,서울: IVP.
Veith, Gene Edward Jr., *The Gift of Art,* 오현미 역(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 나침판.
Webber,Robert E., 이승구 역(1989), 기독교 문화관, 서울: 엠마오.
Wolters,Abert M. (1985), *Creation Rega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Apostolos-capadona, Diane. (1992). *Art, Creativity, and Sacred,* Crossroad.

Begbie, Jeremy. (1991). *Voicing Creation's Praisc,* T&T Clark.
Dyrnness, W.A. (1979). *Christian Art in Asia*, Editions Rodopi N.V.
Ferguson, George.(1954). *Signs & Symbols in Christi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Garside, Chares. (1966). *Zwingli and Ar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Jérôme Cottin. (2007). *La Mystique de L′ Art, Art et Christianisme de 1900 à nos jours,* les Editions Du Cerf, Paris.
Jhon Wilson(1981), *One of The Richest Gift,* Edinburgh: The Handel Press Ltd.
Niebuhr, H Richard(1951) *Christ and Culture,* Haper Torchbooks.
Rookmaaker, H. R.(1970), *Modern Art& The Death of a culture,* Inter-Versity Press.
Veith, Jr. G. E. (1991). *State of the Arts,* Crossway Books.
Worterstoff, Nicholas(1980) *Art in Ac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